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제2995호(號) 1922(大正 11)년 8월 5일

○ 고 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94호(號)

조선 남안(南岸) 부산항에 출입하는 선박은 그 항구 내에 준설선(浚渫船) 금강환(金剛丸) 및 Priestman 식(式) 배에 관해 하기[左記]한 각 항(項)에 주의해야 한다.

1922(大正 11)년 8월 5일 조선총독(朝鮮總督) 남작(男爵) 사이토 마코토(齋藤 實)

하기[下記: 左記]

1. 준설 구역 왼쪽의 5점(點)을 이은 선(線) 내	A점은 가마우지(鵜)의 뇌괘등(瀨挂燈) 입표(立標)에서 299도(북 56도 서) 거리 4와 2/5련(鏈)[1] B점은 동일 305도(북 50도 서)동일 1해리(浬) 1과 3/10련(鏈) C점은 가마우지의 뇌괘등 입표에서 274도(북 50도 서) 거리 1해리(浬) 2와 2/5련(鏈) D점은 동일 268도(북 87도 서)동일 1해리(浬) 4/5련(鏈) E점은 동일 282도(북 73도 서)동일 9련(鏈)
2. 정박(碇泊) 및 표시(標示)	준설선 금강환은 해상충돌예방법(海上衝突豫防法) 제4조 1항의 규정에 준하여 홍등(紅燈) 또는 흑구(黑球)를 게양한다. Priestman 준설선은 야간 정박등(碇泊燈)을 게양한다.
3. 준설기간(浚渫期間)	1922(大正 11)년 8월 1일에서 1925(大正 14)년 3월 31일까지
4. 관계해도(關係海圖)	제국해군수로부(帝國海軍水路部) 간행 제313호

1) 역자 : 해상거리의 단위로 영어로 cable('s) length라고 한다. 1련은 1/10해리이며, 182.88미터이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